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노동시장 동학 연구*

남 재 량**

임금 연공성이 매우 강한 한국에서 생애 주된 일자리 이탈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생애에서 가장 큰 사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므로, 이의 발생 및 이후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 직전 90%를 상회하던 취업자 비율이 이탈 직후 20% 이하로 크게 하락하였다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다시 40%를 넘는 수준으로 상승한다. 월평균 및 시간당 임금(보수)이 주된 일자리 퇴직 전년도부터 급락하며, 이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4년이 경과하면서 반등한다. 근로시간은 주된 일자리 퇴직 3년 전부터 급격히 감소하며, 퇴직 이후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다시 감소한다. 이러한 변화들은 해당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고 결국 빈곤상태로 전락할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이상의 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 은퇴 시점의 연거나 점진적 은퇴의 필요성이 크다.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급락하였던 취업자 비율이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어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재고용을 원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임금유연화 등의 노력을 통해 임금과 생산성 간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는 재고용 저해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다. 건강과 고령으로 인한 주된 일자리 이탈 비율이 높으므로, 원하는 근로를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경주되어야 한다.

주요용어 : 주된 일자리, 은퇴, 빈곤, 노동시장 동학

1. 서 론

우리가 일자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지도 오래 되었다. 당초 일자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말 그대로 일자리 그 자체에 국한된 것이었다. 그러나 일자리는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복지를 실현케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일자리는 새로운 차원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 이 논문의 제2절은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남재량, 2020)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우리의 분석도 다각도에서 심층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다. 우리는 일생을 거치면서 다양한 일자리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가운데에서도 특히 생애에 걸쳐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의 일자리에 대한 분석은 주로 일반적인 일자리 개념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으며, '생애에 걸친' '주된' 일자리에 대해 분석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다. 그러나 생애의 주된 일자리는 그렇지 않은 일자리와 크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이탈은 특히 임금의 연공성이 매우 강한 한국에서 더욱 특별하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강한 연공임금제 하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은 이후 근로소득의 급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이후의 지속적인 고용불안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50세 이상의 중고령층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은 유사한 일자리 재취업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불안하고 열악한 형태의 근로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근로소득의 격감과 이후의 근로빈곤 및 노인빈곤으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주된 일자리와 이로부터 이탈이 가지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따른 근로소득의 변화와 소득분배 및 빈곤의 동학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일자리와 근로조건 등을 자세히 조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추적관찰이 가능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는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먼저 주된 일자리 이탈을 전후하여 경제활동상태와 근로의 형태 등의 변화를 추적하여 분석한다. 이어서 이러한 변화에 따른 근로소득과 근로시간 등의 변화가 과연 어느 정도나 되고 어떤 시점부터 그러한 변화가 시작되는 지를 알아본다. 나아가 시간당 임금의 변화에 대해서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어느 정도나 되는 지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이탈 사유의 분포와 이에 따른 임금의 분포 등에 대해서도 살펴, 주된 일자리 이탈을 낮추기 위한 노력의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이 이를 전후한 시기의 소득분배 상태와 빈곤 및 이들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하기로 한다. 이상의 분석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정책적으로 얻을 수 있는 시사점들을 제시하면서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다.

II.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경제활동

1. 기존 연구

기존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들 가운데 대표적인 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와 주된 일자리 이탈에 대해 알아보

자. 경제활동인구조사는 만 55~79세를 대상으로 매년 5월에 부가조사를 실시한다. 여기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일자리(직장)’에 대해 질문하는데, 이를 생애 주된 일자리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조사는 주된 일자리 근속기간, 지금도 근무 여부, 그만둘 당시 나이, 그만둘 당시 근로형태, 업종, 직종, 그만둔 주된 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로부터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특성과 이후 상태들에 대해 추적관찰을 통한 분석이 가능하다.

주된 일자리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 이로부터 이탈자를 추적 관찰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고 있는 연구로 남재량(2019)을 들 수 있다. 그는 주된 일자리 5년 이상 근속 55~64세 가운데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의 경제활동상태를 3년 동안 추적하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 이탈 후 1년 이하 경과 시 해당 인구 가운데 취업자 비율이 급락하고 실업률이 급등하였다가 2년에 이르면 상당 정도로 회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

2.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된 일자리 은퇴를 전후한 개인에 대한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그런데 위에서 언급한 경제활동인구조사는 표본의 지속적인 교체로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에 어려움이 있다. 장기 추적 관찰을 위해서는 이러한 용도에 맞도록 구축된 패널자료가 보다 유용하다. 여러 패널자료들이 존재하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면 이러한 필요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다.

먼저 KLIPS 상의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해 알아보자. KLIPS는 2015년 제18차 조사의 장년 부가조사에서 만 50~74세를 대상으로 ‘현재 하고 있거나 과거에 하였던 일 가운데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생애에서 가장 주된 일자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다녔으며, 그만 두었다면 그만둘 당시의 사업체 특성과 일자리 특성, 월평균 임금 또는 소득, 정년 유무, 그만둔 이유 등을 묻고 있다. 아울러 은퇴 및 은퇴 관련사항들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이제 KLIPS를 사용한 주된 일자리 이탈과 이를 전후한 시기의 특성 분석을 가능케 할 추적관찰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KLIPS의 2015년 장년 부가조사 결과를 2015년의 경상조사 및 인접한 여러 해 동안의 자료와 병합하여 분석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며 다양한 새로운 정보 추출이 가능하다. 현재 주요 자료정제(data cleaning) 과정이 마무리된 2018년 조사 자료까지 염두에 둔다면, 2014년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경우 이후 4년 동안에 대한 추적관찰이 가능하며, 그 이전의 시기로도 거슬러 올라가 분석할 수 있다. 따라서 2015년의 장년 부가조사 자료는 본 연구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제 실제 KLIPS 장년 부가조사 자료상의 특징들을 살펴보자. 먼저 주된 일자리에서 1년 이상 일한 사람들 가운데 2014년에 여기에서 이탈한 사람들과 이들의 구성을 알아보

자. 2015년 장년 부가조사에서 50~69세 가운데 2014년에 주된 일자리를 그만 두었다고 응답한 개인은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4,405명이다. 여성이 53.0%로 남성보다 다소 많고 50대가 55.0%를 차지하며 중졸이하 학력 비율이 44.7%로 가장 높다. 그러나 가중치를 적용하면, <표 2>에서 보듯이 남성이 23만 8천 명으로 52.5%를 차지하게 되고 50대 연령층의 비중은 62.9%로 높아지며 고졸 학력집단의 비중이 44.6%로 가장 높아진다. 여기서 적용한 가중치는 2015년의 횡단 가중치이며, 개인들에 대한 앞으로의 분석에서도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 가중치를 사용할 것이다.

주된 일자리 이탈자들의 60% 정도는 가구주이고 배우자인 경우가 40% 정도를 차지하며, 기타의 경우는 미미한 정도에 불과하다.(표 3) 가구 경제활동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가구주가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할 경우 그러한 가구 전체의 경제 상황이 크게 영향받게 되므로, 우리는 이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가구들의 구성원 수가 많다면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 이탈은 사회와 국가 전체적으로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90% 가량은, <표 4>에서 보듯이, 기혼 유배우 상태에 있다. 다만 이들의 비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기혼 유배우도 아니고 미혼도 아닌 기타의 비율이 점점 높아져 2018년에 이르면 11.8%를 차지한다.

<표 1>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와 그 구성 : 가중치 미적용

(단위 : 명, %)

	계	성		연령집단		학력집단			
		남성	여성	50대	60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표본수 (명)	4,405	2,071	2,334	2,424	1,981	1,967	1,709	218	511
구성비	100.0	47.0	53.0	55.0	45.0	44.7	38.8	4.9	11.6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2>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와 그 구성 : 가중치 적용

(단위 : 천명, %)

	계	성		연령집단		학력집단			
		남성	여성	50대	60대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표본수 (천 명)	452	238	215	284	168	178	202	39	34
구성비	100.0	52.5	47.5	62.9	37.1	39.3	44.6	8.5	7.6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3>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가구주	59.4	59.3	59.4	60.5	62.4	60.6	59.1	59.0	60.2
배우자	39.5	40.6	40.5	39.4	37.6	39.3	40.8	40.9	39.8
기타	1.1	0.1	0.1	0.1	0.0	0.1	0.1	0.1	0.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4>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혼인상태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기혼유배우	90.9	91.8	91.2	89.1	89.4	88.4	88.9	87.5	87.2
미혼	1.0	0.0	0.0	1.0	1.0	1.0	1.0	1.1	1.0
기타	8.1	8.2	8.8	9.9	9.5	10.6	10.1	11.5	1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5>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평균 퇴직연령

(단위 : 세)

	계	성		학력집단			
		남성	여성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연령	56.9	56.9	56.9	59.3	55.9	54.8	53.3
차이	0.0	0.0	0.0	2.4	-1.0	-2.0	-3.6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이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을 살펴보자. 2014년 주된 일자리 퇴직 당시 연령은 <표 5>에서 보듯이 평균 56.9세이며, 우연히 남성과 여성의 연령이 같다. 중졸이하자의 평균 퇴직 연령은 59.3세인데, 학력이 높을수록 퇴직 연령이 낮아져 대졸이상의 경우 전체 평균인 56.9세보다 3.6세 낮은 53.3세이다.

3.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경제활동에 대한 추적 관찰

이제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에서 나타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추적관찰 결과를 살펴보자.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주된 일자리 이탈자 고용 관련 변수들의 급변 및 불안정이다.

가. 고용 관련 변수들의 급변

주된 일자리에서 2014년에 이탈한 근로자의 이탈 전후 경제활동에 대한 추적 관찰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그림들을 그려 함께 제시하였다. 종사상의 지위 변화와 근로형태 변화에 대해서도 추적 관찰한 결과를 그림으로 그려 살펴보았다. 비교를 위해 해당 연령층인 50~69세의 경제활동상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반복하여 추적 관찰한 결과를 함께 그림에 제시하였다.([그림 1]~[그림 4]) 이 표와 그림들에서 보듯이 취업자 비율과 비경활 비율, 실업자 비율, 그리고 실업률과 참가율 등에서 매우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며, 이러한 변화들은 해당 연령층 전체의 경우와 크게 대비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특징은 취업자 비율과 참가율의 급락 후 회복이다. <표 4>에서 보듯이 취업자 수가 해당 연령층의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취업자 비율, 즉 고용률은 주된 일자리 퇴직 직전인 2013년에 92.7%였으며, 참가율은 95.4%였다. 2014년 주된 일자리 퇴직과 함께 이 변수들의 값이 각각 74.4%와 74.6%로 하락하고 있다. 2015년에 이르면 이들은 각각 18.4%와 29.6%에 불과할 정도로 급격히 하락한다. 급락한 취업자 비율과 참가율은 이후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4년 후인 2018년에도 이들의 값은 모두 41.7%에 머무는 데에 불과하다. 반면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경제활동상태 비율들은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보듯이 매우 안정적이다.

실업 관련 주요 특징은 실업률과 실업자 비율의 급등 후 회복이다. 주된 일자리 퇴직자 가운데 2014년에 실업상태에 놓이게 사람의 해당 연령층 인구에 대한 비율인 실업자 비율은 0.2%이며, 실업률은 0.3%에 불과하다. 그러나 퇴직 이듬해인 2015년에 실업자 비율은 11.2%로 급등하며, 실업률은 무려 37.9%에 달한다. 이후 실업률은 2016년에 19.2%로 하락하고 2017년에 다시 4.9%로 하락하며 2018년에 이르러 0% 수준을 회복하며, 실업률 비율도 유사한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실업 관련 변수들의 급등 후 회복하는 모습은 노동시장에서 마치 겪지 않아도 될 불필요한 과정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경제활동상태 비율들은 [그림 2]와 [그림 4]에서 보듯이 매우 안정적이다.

<표 4>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경제활동상태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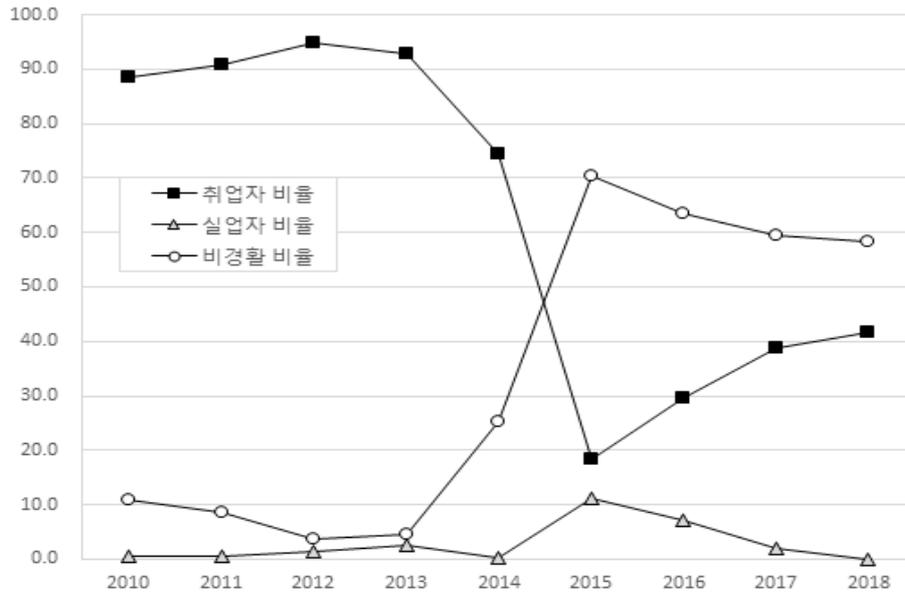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취업자 비율	88.4	90.9	94.8	92.7	74.4	18.4	29.5	38.7	41.7
실업자 비율	0.6	0.6	1.3	2.7	0.2	11.2	7.0	2.0	0.0
비경활 비율	11.0	8.6	3.8	4.6	25.4	70.4	63.4	59.3	58.3
실업률	0.6	0.6	1.4	2.8	0.3	37.9	19.2	4.9	0.0
참가율	89.0	91.4	96.2	95.4	74.6	29.6	36.6	40.7	41.7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경제활동상태 비율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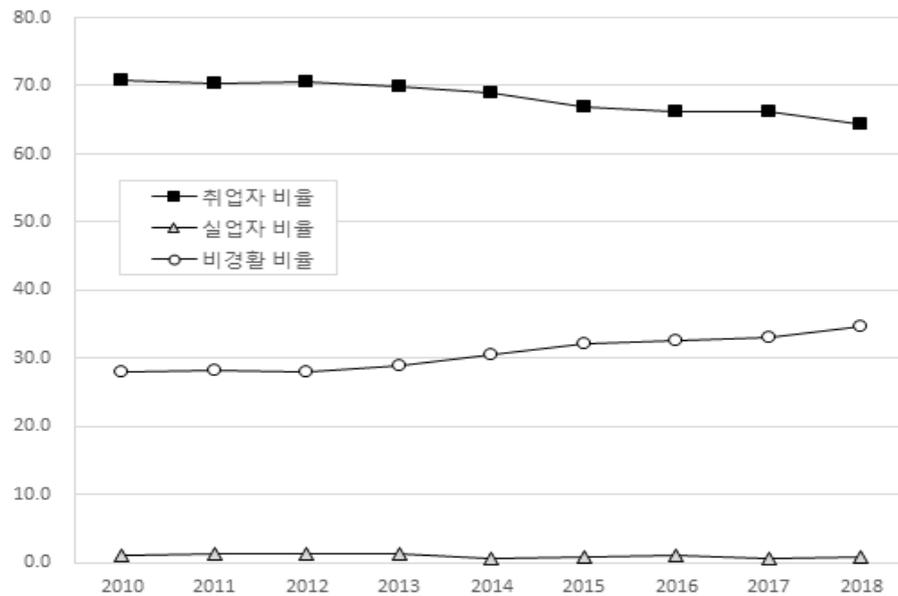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2]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경제활동상태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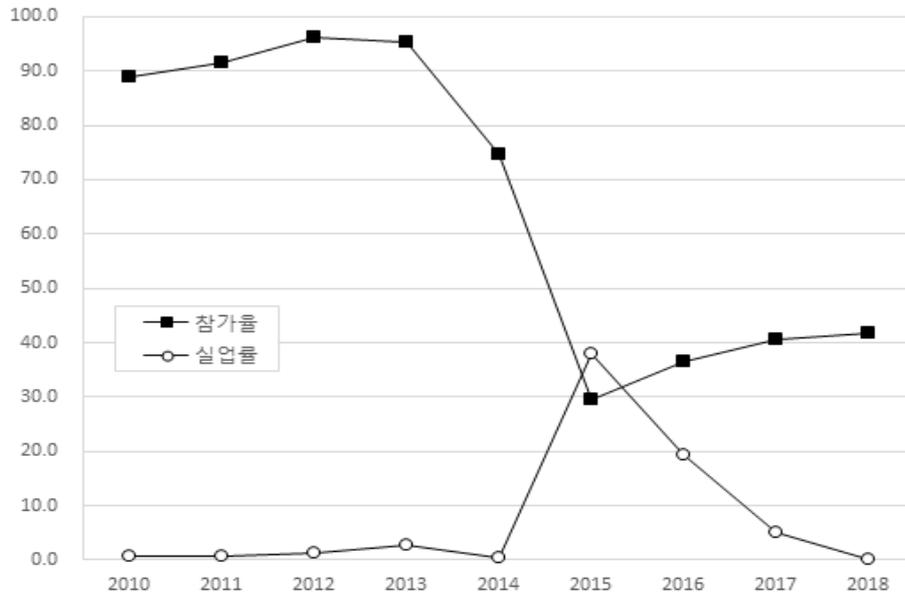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3]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참가율과 실업률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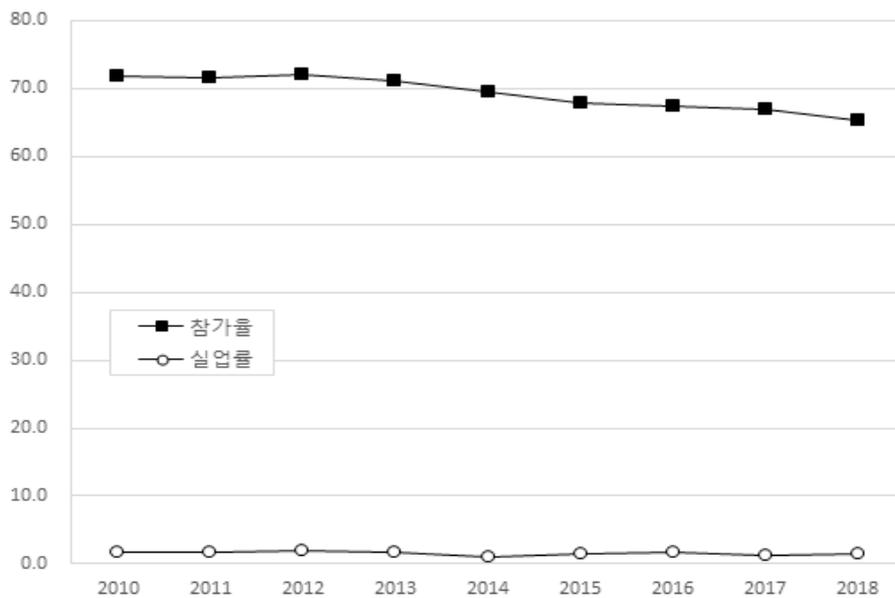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 50~69세 연령층 전체의 참가율과 실업률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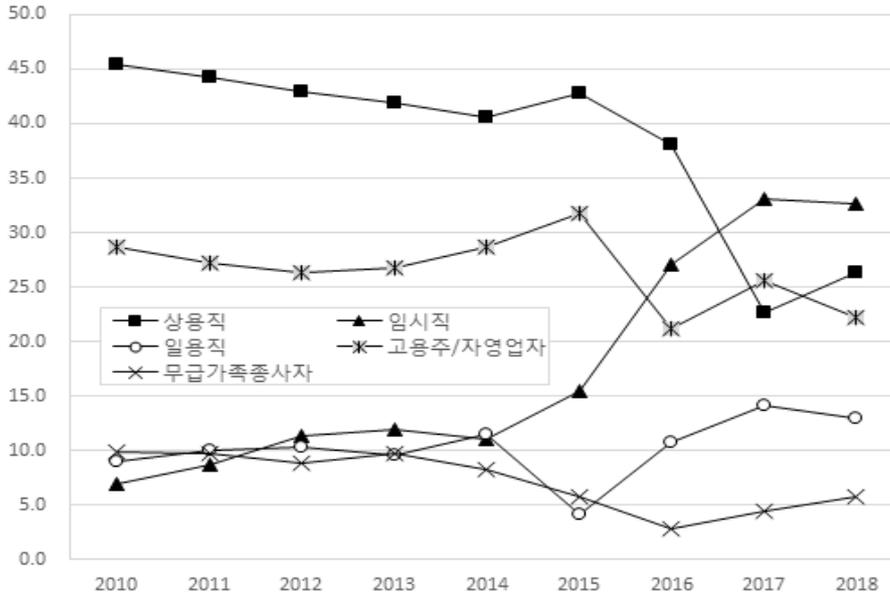
나. 종사상 지위의 변화

이제 종사상 지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종사상의 지위는 2016년에 이르러서야 크게 변하고

있다. 즉 2015년에 비해 2016년의 상용직 비율 감소가 두드러지며, 2017년의 상용직 비율 감소는 급격한 반면, 고용주/자영업자 비율 감소는 2016년에 크다. 임시직의 비율은 2015년부터 2017년에 걸쳐 급격히 증가하며, 일용직 비율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림 5]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종사상 지위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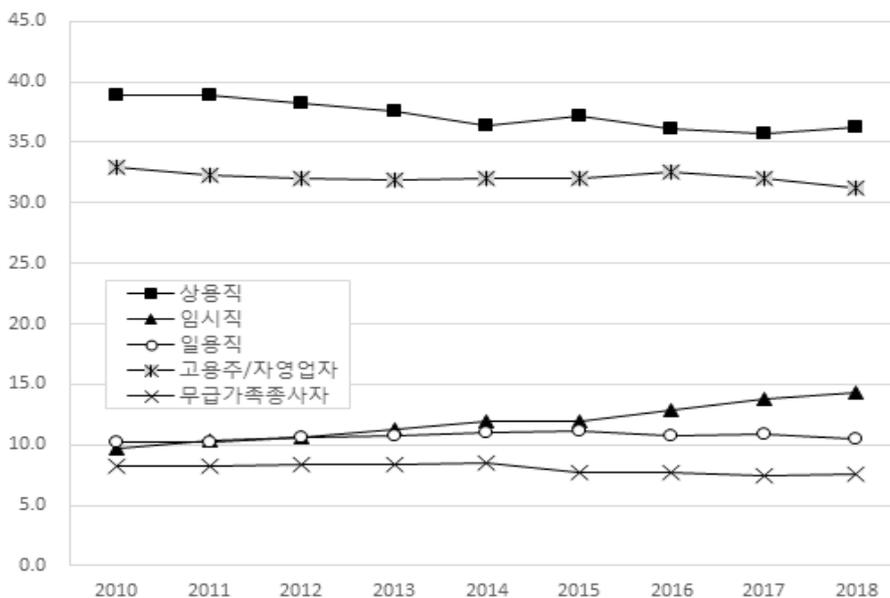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6] 50~69세 연령층 전체의 종사상 지위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다. 근로형태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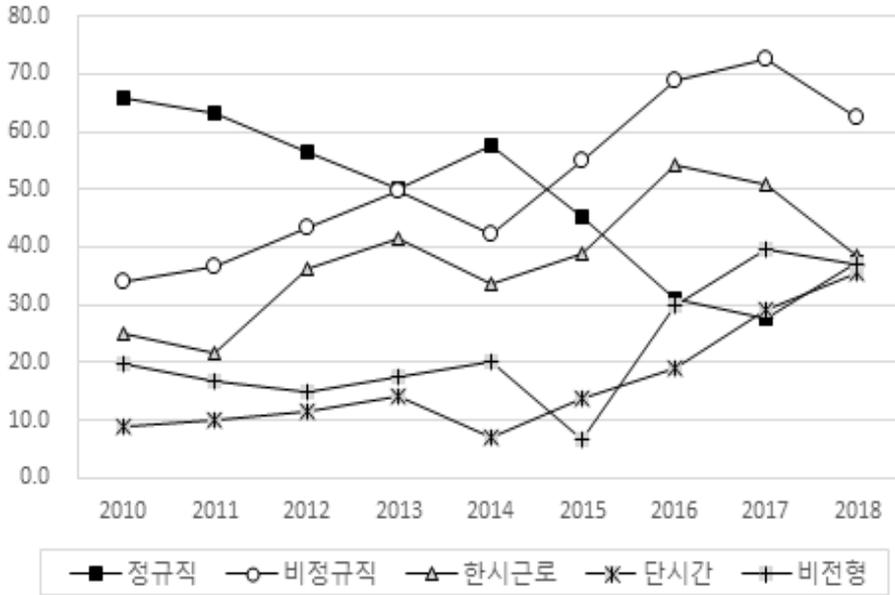
근로형태의 변화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퇴직 이듬해인 2015년부터 정규직 비율 급감 및 비정규직 비율 급증 현상이다. 여기서 비정규직이라 함은 한시근로와 시간제근로 및 비전형근로를 말한다.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주요용어해설)에서 한시근로를 하는 한시적 근로자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된다. 비전형근로자란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를 말한다.

한시근로도 2015년부터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달리 단시간근로의 비율 증가는 2017년과 2018년도 계속되고 있다. 비전형근로는 퇴직 이듬해인 2015년에 오히려 감소하며 이후 2년 동안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림 7]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근로형태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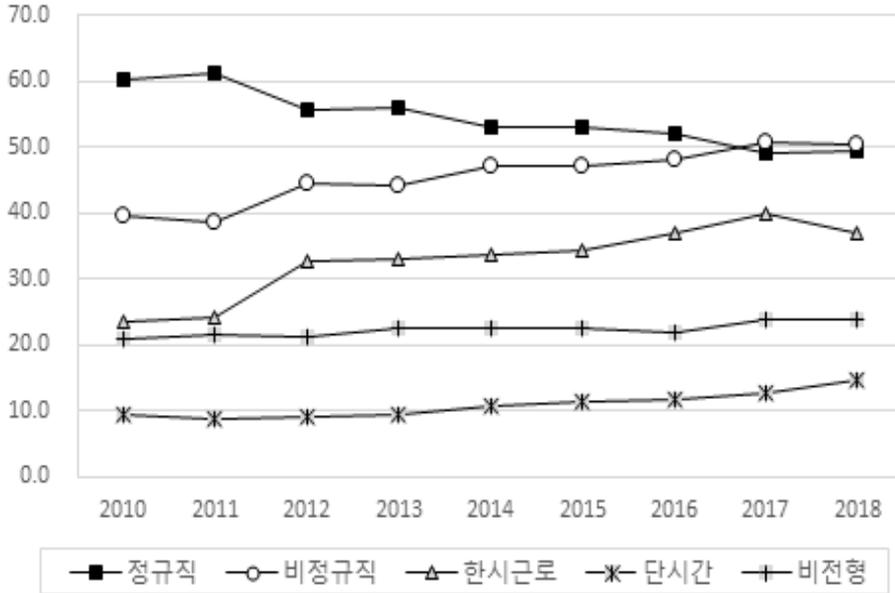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8]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근로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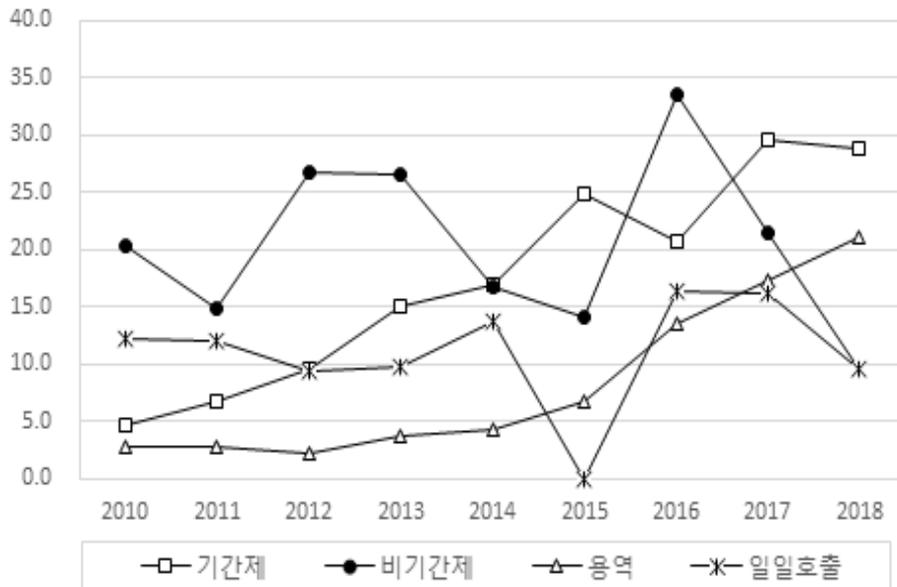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9]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세부 근로형태 추적관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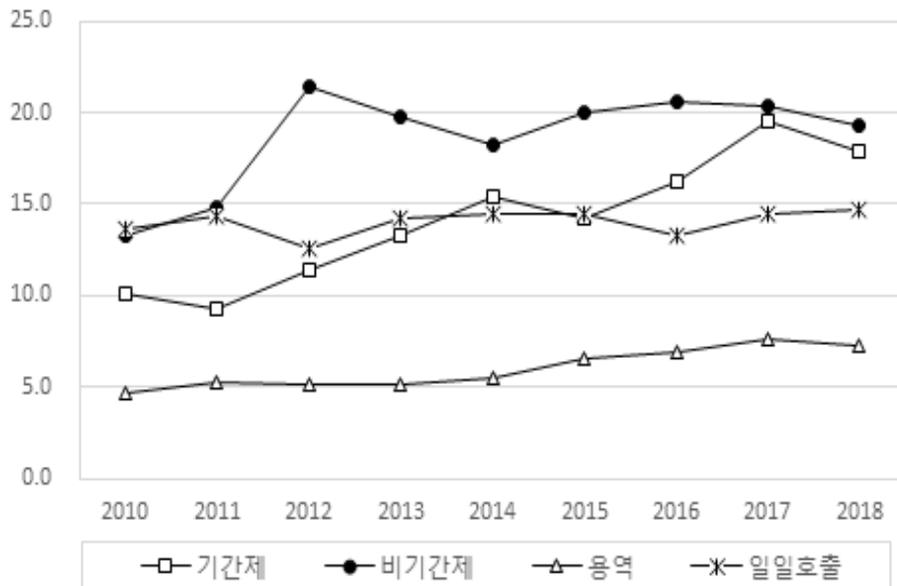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0] 50~69세 연령층 전체의 세부 근로형태

(단위 :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4.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근로소득의 변화

가. 임금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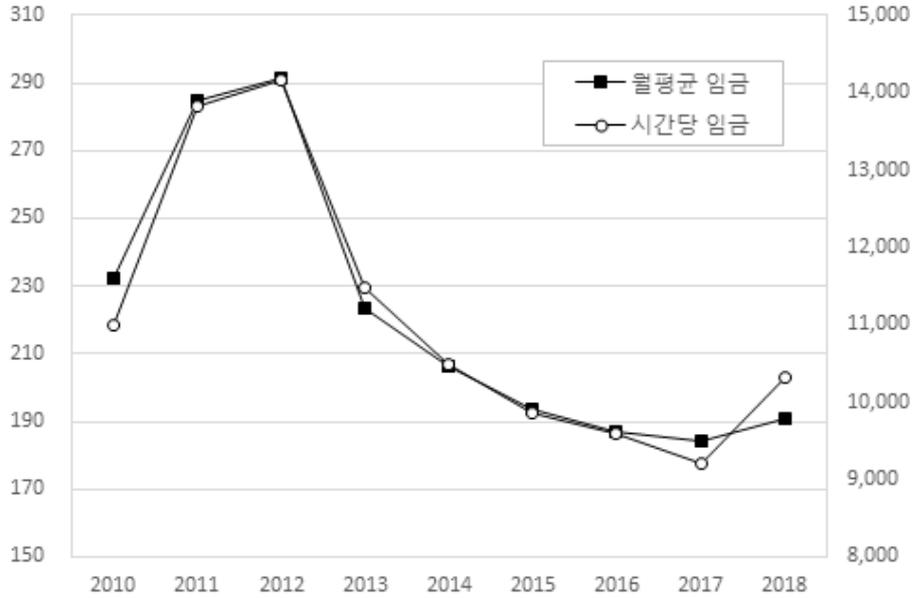
먼저 주된 일자리 이탈 전후 월평균 임금 또는 보수와 시간당 임금 또는 보수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월평균 임금(보수)과 시간당 임금(보수)의 움직임은 [그림 11]에서 보듯이 매우 급격한데, 두 변수의 움직임은 매우 흡사하다. 주된 일자리 퇴직 전년도인 2013년의 임금이 2012년의 경우에 비해 급감하고 있으며, 감소폭은 줄어들었으나 이후의 감소세는 주된 일자리 퇴직 후 3년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50~69세 [그림 12]에 제시한 연령층 전체의 경우와 크게 구분된다.

나. 근로시간의 변화

다음으로 근로시간의 조기 변화와 급격한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그림 13]에서 보듯이 근로시간은 2011년부터 크게 하락하고 있으며, 퇴직직전 연도인 2013년까지 이러한 하락세는 그대로 지속된다. 퇴직 당해 연도인 2014년에 근로시간은 미소하지만 오히려 증가하며, 이듬해의 근로시간 증가는 상당히 큰 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후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근로시간 감소와 유사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18년에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큰 폭의 근로시간의 변화가 주된 일자리 퇴직을 3년이나 앞둔 시점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이러한 현상이 매우 굳건한(robust) 것이라면, 우리는 큰 폭의 근로시간 감소를 주된 일자리 퇴직의 전조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1]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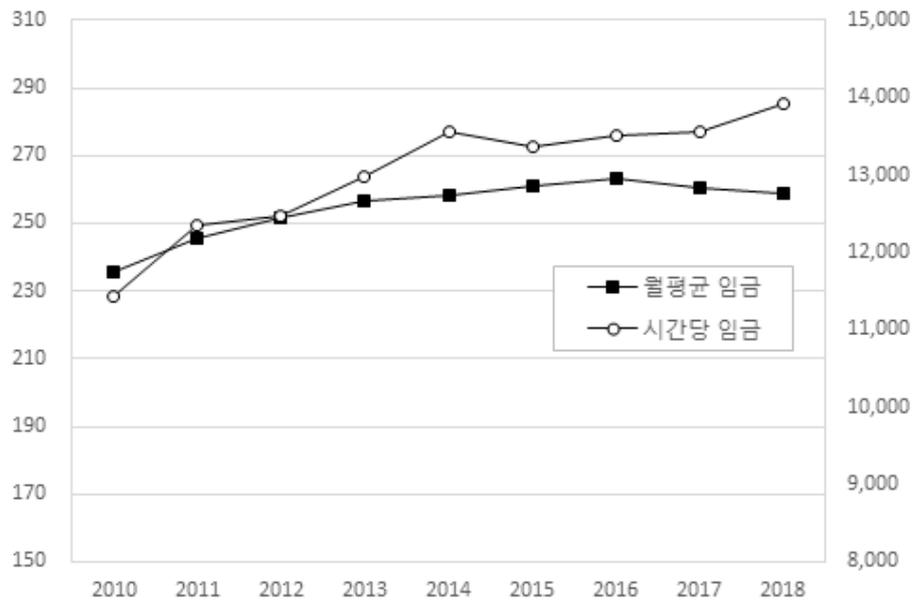
(단위 : 만원, 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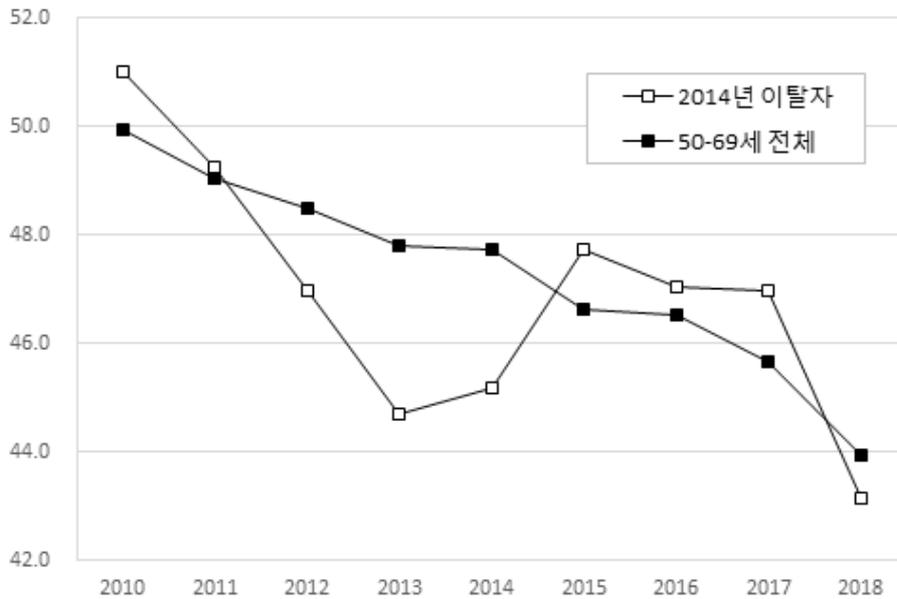
[그림 12] 50~69세 연령층 전체의 월평균 임금과 시간당 임금

(단위 : 만원, 원)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3]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와 50~69세 연령층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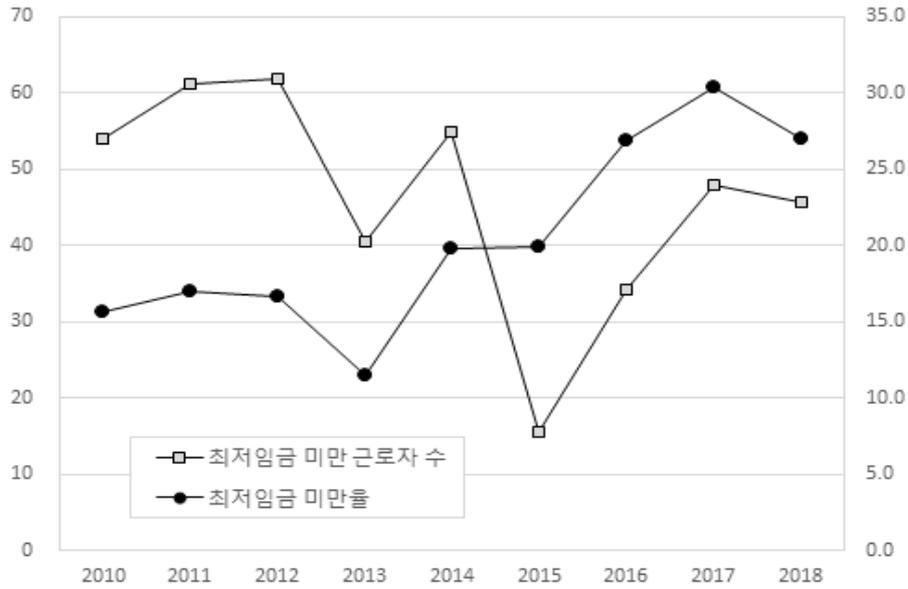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다. 최저임금 미만률의 급격한 상승

주된 일자리 퇴직에 따른 고용 악화와 함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수 역시 퇴직 이듬해에 크게 감소한다. 반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비율인 미만률은 퇴직 연도인 2014년부터 크게 상승하며 이듬해에 별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이후 2년에 걸쳐 크게 증가한다. 이에 따라 미만율은 퇴직 직전 연도의 11.4%에서 2017년의 30.3%로 세배 가까이 상승하고 있다.(오른쪽 축) 이러한 모습은 50~69세 연령층 전체의 경우와 크게 구분된다.(그림 15)

[그림 14] 주된 일자리 2014년 이탈자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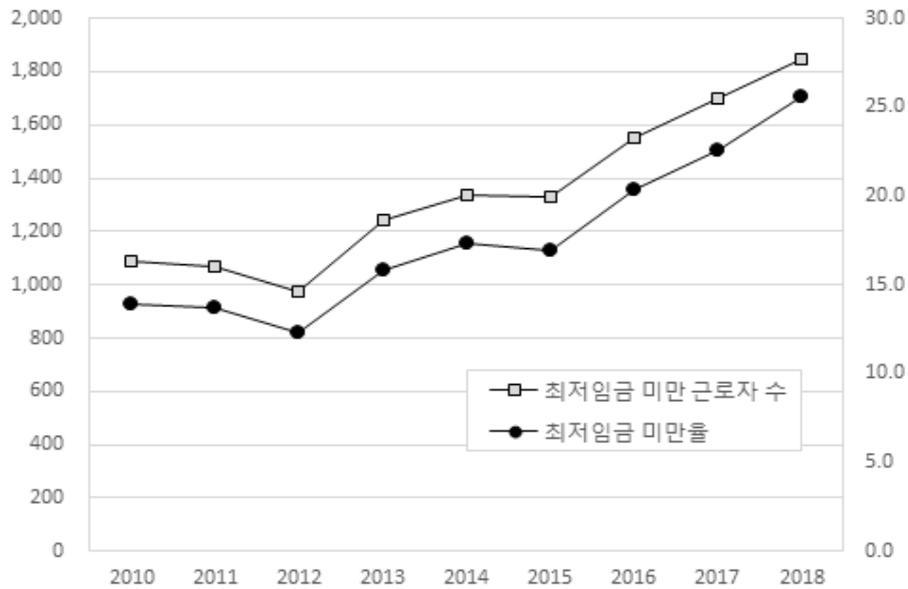
(단위 : 천명,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5] 50~69세 연령층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수와 미만률

(단위 : 천명, %)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라.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의 분포

<표 5> 주된 일자리 2014년 퇴직자의 퇴직사유 및 당시 연령과 임금

(단위 : 명, %, 세, 만원, %)

	해당자수	비율	퇴직당시 만나이	평균연령 과의 차이	퇴직당시 평균임금	평균임금 (전체) 대비 비율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해	50,430	11.1	55.0	-1.9	226	113.6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	59,917	13.2	56.7	-0.2	161	81.0
명예퇴직	24,332	5.4	55.6	-1.3	317	159.2
정년퇴직	42,148	9.3	59.9	3.0	278	139.9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178,956	39.6	58.2	1.3	179	90.1
해고(징계나 정리해고 포함)로 인해	7,985	1.8	54.3	-2.5	386	194.0
권고사직	9,553	2.1	50.3	-6.6	-	-
계약기간 끝나서	11,954	2.6	57.3	0.4	146	73.6
소득 또는 보수가 적어서	17,773	3.9	52.2	-4.6	248	124.8
일이 임시적이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3,754	0.8	56.1	-0.8	84	42.4
적성, 지식, 기능 등이 맞지 않아서	3,579	0.8	56.3	-0.6	-	-
근로시간 또는 근로환경이 나빠서	2,877	0.6	-	-	-	-
자기(가족)사업을 하려고	10,562	2.3	56.3	-0.6	-	-
결혼, 육아, 가사 등 가사문제	19,112	4.2	55.6	-1.3	76	38.3
회사 내 인간관계 때문에	1,592	0.4	-	-	250	125.8
우리 집이 이사하여서	7,849	1.7	55.2	-1.7	-	-
계 (평균)	452,373	100.0	56.9	0.0	199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건강, 고령 등의 이유로 퇴직하는 경우가 <표 5>에서 보듯이 전체 퇴직의 39.6%를 차지하여 단일 항목으로 가장 비중이 크다. 그러나 직장의 파산, 폐업, 휴업 등으로 인한 경우가 11.1%, 일거리가 없거나 적어서인 경우가 13.2%, 명예퇴직 5.4%, 정년퇴직 9.3%이며 이들을 함께 묶으면 39.0%로 높아진다. 여기에 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의 경우를 포함하면, 이 비율은 44.5%로 높아진다. 이들 전부는 아니겠으나, 이들 가운데 상당부분은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이제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별 평균 임금을 살펴보자. <표 5>에서 보듯이 퇴직 사유별로 퇴직 당시 임금수준에 차이가 큰데, 명예퇴직의 경우가 317만 원으로 가장 높고 정년퇴직이 278만 원으로 그 다음이다.

III. 주된 일자리 이탈자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및 빈곤 동학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상태와 그 변화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가구원의 수에 대해 살펴보자. 가구원의 수가 많은 가구에서 가구주의 주된 일자리 이탈이라는 충격은, 다른 상황이 동일하다면, 그렇지 않은 가구의 경우에 비해 매우 클 것이므로, 가구원 수는 중요한 정보이다. <표 7>은 이를 보기 위해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서 보듯이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는 주된 일자리 이탈자가 없는 가구의 가구원 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이탈 가구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는 46~7.8%에 불과한데, 이는 비이탈 가구의 19.3~24.1%에 비해 매우 낮다. 반면 가구원 수가 2~3명인 경우는 이탈 가구의 경우에서 더 높고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2018년에 이르면 가구원 2인과 3인의 비율은 각각 36.4%와 32.1%로서 비이탈 가구의 21.6%와 20.0%에 대비된다. 반면 가구원 수가 4명인 경우의 비율은 이탈 가구에서 2011년에 40.6%까지 상승하였다가 이후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7년 26.3%, 2018년 19.1%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비이탈 가구에서도 가구원 수가 4명인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0년 31.6%에서 2018년 27.8%로 하락하는 데에 그친다.

<표 8>은 소득의 10분위 비율을 가구의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총소득을 기준으로 한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두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총소득에서 공적 이전소득을 제외한 경상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표 7>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 유무 가구별 가구원 수 비율

(단위 : %)

	가구원수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이탈	1명	4.6	5.6	5.4	5.7	5.4	5.6	6.1	7.6	7.8
	2명	21.4	19.7	23.6	22.4	22.6	26.8	29.0	29.1	36.4
	3명	24.1	24.1	24.0	25.9	25.8	27.7	31.7	32.4	32.1
	4명	38.6	40.6	38.7	38.1	37.6	35.0	28.9	26.3	19.1
	5명	10.6	9.4	7.7	7.4	7.6	4.5	3.8	4.2	4.0
	6명 이상	0.6	0.6	0.6	0.6	1.0	0.5	0.5	0.5	0.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이탈	1명	19.3	20.8	21.6	21.4	21.8	22.3	22.8	23.5	24.1
	2명	19.8	20.2	20.1	20.5	20.6	20.8	21.4	21.2	21.6
	3명	20.7	19.8	19.4	19.7	19.6	19.3	20.3	20.1	20.0
	4명	31.6	31.2	30.9	30.4	30.1	30.2	28.3	28.2	27.8
	5명	7.1	6.7	6.6	6.6	6.5	6.2	6.0	5.9	5.3
	6명 이상	1.6	1.4	1.4	1.4	1.3	1.2	1.1	1.1	1.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8>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이탈 가구의 소득이 1분위와 2분위에 위치하는 비율이 주된 일자리 이탈과 더불어 급격히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즉 이탈 가구의 1분위와 2분위 비율은 2014년에 각각 4.4%와 6.3%이어서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비율이 10.7%에 불과하였으나, 2015년에 이 비율이 20.2%(7.2+13.0)로 상승하고 있으며, 2016년에 25.8%(11.4+14.4)로 더욱 상승하였다.

평균 연령 56.9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할 경우 이에 해당하는 4 가구 가운데 1 가구는 2년 정도 지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후 이러한 소득 하위 20% 비율은 2017년 23.7%와 2018년 25.3%로 변동하고 있다.

<표 8>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 경상소득 기준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위	2.7	4.5	2.4	7.2	4.4	7.2	11.4	11.4	8.1
2분위	4.4	5.1	8.1	6.1	6.3	13.0	14.4	12.3	17.2
3분위	8.2	5.0	8.3	6.1	10.2	13.2	14.0	4.7	6.3
4분위	13.7	11.1	8.4	16.3	6.5	7.0	12.1	9.9	13.9
5분위	5.6	13.0	14.0	8.9	8.0	9.7	7.4	14.1	7.9
6분위	12.5	7.5	9.0	5.0	8.4	6.1	9.7	12.7	14.4
7분위	16.4	17.4	9.3	12.8	13.7	6.5	8.5	8.5	7.5
8분위	9.2	12.7	14.6	9.9	12.8	13.6	5.5	9.3	8.5
9분위	17.0	11.4	9.3	16.4	15.6	15.2	9.9	11.9	7.3
10분위	10.3	12.3	16.7	11.4	14.1	8.4	7.1	5.1	9.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표 9> 주된 일자리 이탈 가구원이 있는 가구의 소득분배 : 총소득 기준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분위	2.5	3.7	2.5	6.5	4.5	8.5	13.5	12.3	9.9
2분위	4.3	3.9	6.1	4.6	5.8	9.3	12.7	10.9	13.3
3분위	7.9	5.9	9.5	7.9	11.2	15.5	14.5	4.2	7.7
4분위	14.8	11.5	10.8	16.4	6.1	7.4	11.7	10.7	12.8
5분위	4.7	11.4	12.1	7.5	8.7	6.1	8.3	14.3	11.7
6분위	12.5	9.2	9.0	6.2	11.9	8.4	8.2	13.0	10.2
7분위	13.6	17.4	9.9	12.8	10.5	5.2	9.1	7.6	11.4
8분위	11.6	12.2	13.8	11.3	10.3	11.0	5.9	11.5	5.6
9분위	16.8	13.8	8.5	16.1	14.2	12.0	8.9	10.4	8.7
10분위	11.3	11.0	17.6	10.7	16.9	16.6	7.3	5.1	8.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탈 가구가 빈곤하게 되는 정도를 살펴보자. 빈곤을 정의하는 데에 있어 흔히 사용되는 빈곤선은 2014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하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이었다. 그러나 관련 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의 개념이 도입되어 빈곤선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의 조사 결과에서 중위소득의 50%를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하여 고시되는 소득이다. 후자의 개념에 입각하여 빈곤선을 정의할 경우 전자의 경우에 비해 빈곤선이 높아져 빈곤률 역시 커지게 된다.¹⁾

<표 10>은 2014년까지 최저생계비 개념에 입각하여 그리고 2015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개념을 사용하여 빈곤선을 정의하고 빈곤률을 계산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그림 16]과 [그림 17]은 <표 10>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 제시한 것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돕기 위함이다.

<표 10>에서 보듯이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주된 일자리에서 2014년에 이탈하게 되는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2013년에만 하더라도 4.7%로서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2013년 빈곤률인 10.6%에 비해 훨씬 낮았다. 그러나 주된 일자리 이탈이 발생하는 2014년에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전년도의 4.7%에 비해 8.8% 포인트나 상승한 13.5%를 기록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의 이탈가구 빈곤률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각각 18.5%와 20.4%로 높아진다.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가구원이 있는 가구는 이로부터 2년 가량 경과하는 경우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하는 빈곤가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표 10> 빈곤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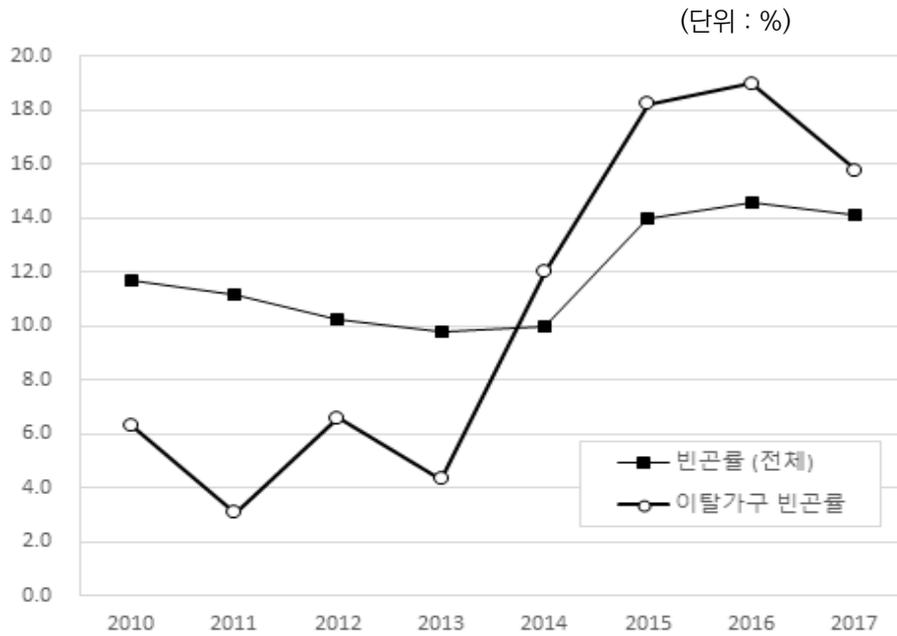
(단위 :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경상소득 기준	전체	12.5	12.0	11.2	10.6	11.3	15.5	16.0	15.2
	이탈가구	7.9	3.4	8.2	4.7	13.5	18.5	20.4	16.8
총소득 기준	전체	11.7	11.1	10.2	9.8	10.0	14.0	14.6	14.1
	이탈가구	6.3	3.1	6.6	4.3	12.0	18.2	19.0	15.8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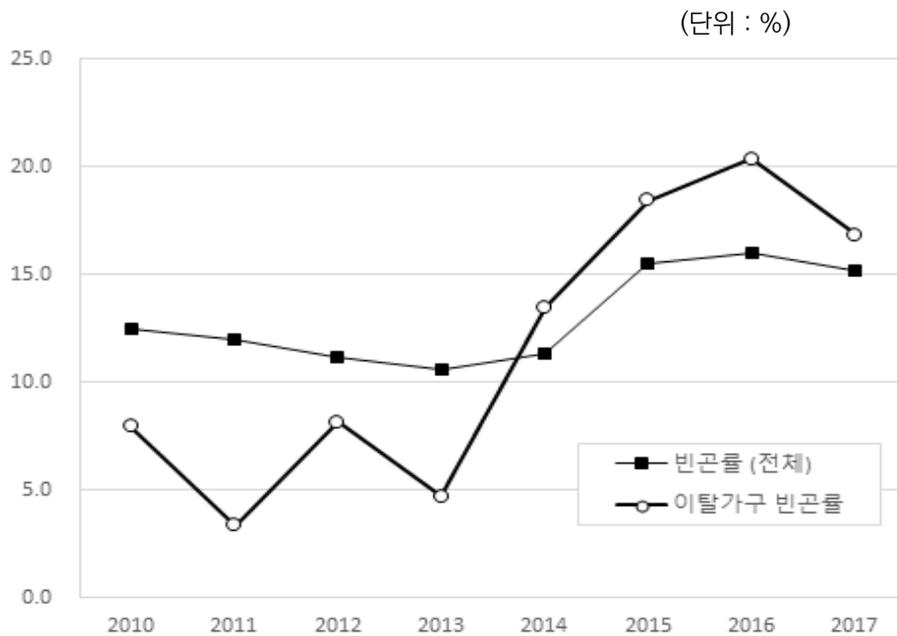
1) 따라서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빈곤률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그림 16] 빈곤률 : 총소득 기준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17] 빈곤률 : 경상소득 기준



자료 :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계산

IV. 결론

이제 앞의 분석결과들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한편, 이들이 시사 하는 바를 제시하면서 본 연구를 마무리하기로 하자. 먼저 고용 관련 특징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된 일자리 퇴직 시점(연도)과 그 이후 한동안 급격한 변동 및 불안정이었다. 2014년도에 50~69세이면서 주된 일자리에서 적어도 1년 이상 일한 평균 연령이 56.9세인 퇴직 직전 연도에 90%를 넘던 취업자 비율이 퇴직 직후 연도에서 20%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락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3년이 경과하기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40%를 넘고 있었다. 참가율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었다. 실업률은 퇴직 시점(연도)에 0% 수준이나, 퇴직 직후 연도에서 40%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하였다가, 이후 3년이 경과하면 퇴직 직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해당 연령층 전체의 변화와 전혀 다른 모습인데, 해당 연령층 전체의 고용 관련 움직임은 상대적으로 매우 안정적이었다.

다음으로 임금 관련 특징들이다. 무엇보다도 주된 일자리 퇴직 전년도부터 급격한 변화가 관찰되며 퇴직 이후에도 상당한 변화를 보였다. 퇴직 1년 전부터 월평균 임금(보수) 및 시간당 임금(보수)이 급락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가 4년이 경과하면서 반등하고 있었다. 해당 연령층 전체의 월평균 임금(보수) 및 시간당 임금은 안정적으로 상승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특징은 주된 일자리 퇴직 3년 전부터 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관찰되며, 퇴직 이후 근로시간이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최저임금 미만률의 급증 현상도 주목할 만하다. 퇴직 당해 연도부터 미만률이 급증하여 퇴직 후 3년경과 시의 미만률(30.3%)이 퇴직 직전 연도의 경우(11.4%)에 비해 약 3배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 전년도 미만률이 10% 남짓한 수준이었으나, 퇴직 당해 연도 미만률이 20%로 급증하며,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미만률이 30%까지 상승하였다. 미만률의 상승은 해당 연령층 전체로도 나타나고 있으나, 퇴직 전년도의 15% 수준에서 퇴직 당해 연도의 17%로 그리고 다시 퇴직 이후 3년경과 시의 22%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을 뿐이었다.

주된 일자리 이탈 후 이러한 변화들은 이러한 가구들의 소득분배 상태를 악화시키고 있었다. 이탈 직전 이들 가구의 소득 하위 20% 이하 비율은 10.7%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이 비율은 20.2%로 높아졌으며, 그 다음 해에 25.8%로 높아졌다. 이탈가구 4가구 가운데 1가구는 이탈 후 2년 가량 경과하면 소득 하위 20%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이탈가구의 이러한 소득분배 상태 악화는 곧바로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이탈 이전 경제전체 빈곤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이탈과 더불어 경제전체 빈곤률을 넘어서고 있다. 이탈 후 2년 가량 경과하면 이탈가구의 빈곤률은 20%를 넘고 있어 주된 일자리 이탈 5가구 가운데 1가구는 빈곤상태로 전락하게 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들이 시사 하는 바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제시하기로 한다. 첫째, 주된 일자리 이탈 시점 연기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이탈 이유 가운데 45.5%가 노동수요 측면에 기인하였다. 직장의 파산이나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명예퇴직이나 정년퇴직에 의한 주된 일

자리 퇴직이 전체의 39.0%를 차지하였으며, 여기에 해고나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종료를 추가로 고려하면 주된 일자리 이탈자의 45.5%가 주로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에 기인하였다. 이러한 노동수요 측면의 요인은 그 형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겠지만, 임금과 생산성의 괴리가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주된 일자리 고용 유지를 위해 생산성 제고와 임금유연화 노력이 필요할 것인데, 단기간에서 생산성 향상이 어렵다면 임금유연화가 유력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

둘째,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퇴직 사유 가운데 건강과 고령 등의 이유로 퇴직한 경우가 전체의 39.6%를 차지하고 있었다. 고령으로 인해 일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건강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하는 것은 노력에 의해 극복될 여지가 있다.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근로를 계속하기 위한 정도의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셋째, 주된 일자리 퇴직 이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주된 일자리 퇴직 2년 전부터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하며, 퇴직 1년 전에 이르면 임금이 대폭적으로 감소하는데, 임금의 감소는 이후에도 계속되어 퇴직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도 지속되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이탈가구의 소득분배 상태 악화 및 빈곤상태 전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면 고용 관련 변수들은 퇴직 당시와 1년 경과 때까지 급격히 악화되며, 퇴직 이후 3~4년에 걸쳐 다소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였다. 이러한 주된 일자리 퇴직자의 경제활동 및 근로조건의 급격한 변화는 이에 대한 대비 부족을 알려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된 일자리 이탈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나, 근로시간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큰 변화가 있으면 이를 고용조정 신호로 인식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남재량(2019), 「중장년층의 경제활동 특성 분석 및 고용 정책」, 『고령인구 증가와 미래 사회정책』 (이윤경 외) 제5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_____ (2020), 「주된 일자리 은퇴 후 근로소득 격차 연구」, 『한국사회 격차문제와 포용성장 전략』 (김태완 외) 제5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